

광주시 총인 저감시설 심사위원 일부 일방적 해촉, 왜?

시공사 선정 잡음·로비의혹 잠재우기?

7명중 4명 선정사에 높은 점수…市 “분위기 반전 필요”

광주시가 1000억원대의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뒤 훌연 심사위원이 일방적으로 해촉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촉된 위원 중 상당수가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에 가장 좋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사 발주 주체인 광주시가 이번 시공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1일 “광주시는 전체 50명의 위원(임기 2년) 중 민간위원 24명과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없는 건설방재국장 및 건설행정과장 등 2명을 제외한 24명의 공무원 위원 모두에게 자진사퇴 방식으로 선정됐다.

퇴서를 받았다는 17명은 제위촉하고 개인일정 등으로 위원직을 포기한 7명은 해촉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자진사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위원들은 강압에 의한 사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다 시공사 선정과정을 둘러싼 잡음과 로비의혹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에서 ‘문책성 해촉’이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설계·감리를 포함해 공사비가 982억원에 이르는 하수 오염물질 제거시설인 충인(TP) 저감시설을 발주했다. 대립과 금호·현대·코오롱 등 대기업과 지역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결국 0.9점 차로 대립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50명의 명단이 사전에 알려진데다 여기서 무작위로 추출해 15명(공무원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시공사 선정 심사위원회 역시 위원들이 매긴 점수를 모두 공개해야 돼 있어 ‘로비’에 자주로울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시공사 선정 과정에 갖가지 설들이 나돌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특히 이번 해촉 대상 가운데 시공사로 선정된 대립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준 공무원 위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반면 간발의 차이로 떨어진 금호 컨소시엄에 1위를 준 공무원 위원들은 모두 제외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해촉된 공무원 위원 7명 중 4명은 시공사로 선정된 대립컨소시엄에 설계심사 점수 1위를 했고 1명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설계점수 1위를 준 것으로 밝혀졌으며, 금호건설 컨소시엄에 설계점수 1위를 준 공무원들은 이번 해촉자 명단에서 모두 빠졌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심의 위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정과 비위 등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촉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건설방재국 고위간부는 “경쟁이 과열된다”고 그 과정에서 온갖 음해가 난무하고 있어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줄 필요가 있었다”며 “심사위원들을 공개하는 지금의 방식에 대한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월 7명 중 4명은 시공사로 선정된 대립컨소시엄에 설계심사 점수 1위를 했고 1명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설계점수 1위를 준 것으로 밝혀졌으며, 금호건설 컨소시엄에 설계점수 1위를 준 공무원들은 이번 해촉자 명단에서 모두 빠졌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심의 위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정과 비위 등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촉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1일 입찰공고를 냈으며, 10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9월 경 기본설계 심의평가 후 10월 말 시공사 선정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통일준비’ 세미나

광주상공회의소와 연세대 통일 연구소, 전남대 아태지역 연구소 등이 주최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세미나’가 1일 리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3층 연회장에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 다음 암세포 내 2만5804개 유전자의 발현 양상 변화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유방암 세포와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대조군과 달리 청국장을 주출물이 처리된 유방암

세포의 증식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 이와 관련된 유전자 91개를

찾아냈다. 이 중에서도 연구팀은 면역조절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만들어

내는 유전자 CCL과 CSF가 세포 내

염증을 유발해 암세포를 증식시킨다

는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연합뉴스

청국장, 꾸준히 먹으면 유방암 예방

청국장을 꾸준히 섭취하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시됐다.

호서대 자연과학부 김한복 교수팀은 ‘바이오인포메틱스(생물정보학)’

기법을 이용해 청국장 성분이 체내

염증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켜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과학

논문색인(SCI) 등재 국제학술지인

‘영양과 암’ 5월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김 교수팀은 유방암

세포에 청국장 주출물을 처리해 배양

검토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이동통신사업자 대표조직인 이동통신사업협회(CTIA)가 강하게 반발했다. CTIA는 이런 조사 결과가 ‘제한된 증거’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관련과 오류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CTIA는 앞서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사용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꾸준히 쓰면 발암 가능성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 연구소(IARC)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일부 뇌종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위험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모두 14개국 31명의 전문가로 구성

된 IARC 실무 그룹은 가능한 모든 과학적 증거를 검토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IARC 전문가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밭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분류해 되면 WHO는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을 다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 영광 천일염에 반했다

인도네시아 수산청장 등 실무담당 10여 명이 지난달 2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영광을 방문해 친환경 열전과 선진 수산양식 기술을 배우며 마킹하고 돌아갔다.

영광군에 따르면 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어업도시 프로젝트를 위한 한국의 선진 수산양식 기술과 열전개발, 어폐류의 보

‘EEC KOREA’와 함께 국내 기술 이전을 강력히 희망했다.

인도네시아는 소금 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산청은 10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들여 한국형 열전 개발로 소금 자급률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영광군과 협력이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조선이공대학 | 2011학년도 교수초빙

1. 경력기록 전임교원 초빙분야 및 인원				
학과	총보분야	세부자격	인원	세부자격요건
기계공학	생산 및 설비공학	1		
선행방·기계·선행방·기계	선행방·기계	1		
해체(CAD/CAM)과 기계공학	선행방·기계	1		CAD/CAM 강의 가능자 우대
자동차	자동차 디젤기관, 디젤크로노분석(CRD) 및 디젤실습	1		
전자	マイクロ프로세서와 PLC, 네트워크보안	1		
전기	센서, 세라믹박막	1		
광전자정보·광학	광소자 및 광소자 설계	1		
사이버보안과 컴퓨터융합학	유비쿼터스 시스템, 정보보호, 정보보안	1		
뷰티아트과	피부미용	1		• 심포지엄 5년 이상이고 대학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인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법제	1		• 미용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특수전과	특수전분야	1		• 특수전부대 근무경력 5년 이상
군사학				• 군사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포렌치아이즈 서비스업과 경영학	외식포렌치아이즈	1		• 특수전부대 근무경력 5년 이상이고 대학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인재
			12	

다. 학력 및 성적증명서 (학사·석사·박사) 각 1부

(단, 외국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등록증 첨부)

라. 각종 자격증 사본 (본인 자지) 각 1부

마. 경력 및 재직증명서 (일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각 1부

* 외국에서 발행된 것은 국문번역본 (공정) 첨부

나. 자기소개서 1부

사. 학과발전계획서 1부

아. 연구실작품 목록 1부 (소정양식)

자. 연구실적 요약문 1부 (소정양식)

차. 학위논문 및 4년 내내 연구실적물 각 1부

* 석박사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은 원본을 자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학위 논문에는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서명이 있어야 함

* 외국학위 논문 및 국어로 작성된 연구실적물은 국문번역본 첨부

5.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1.6.17(금) ~ 6.22(수) (09시 ~ 17시까지) (학과별 접수일정에만 접수 가능)

1) 6.17(금) : 산학·해양기계, 하이테크(CAD/CAM과)

2) 6.20(월) : 자동차, 바이오디스파, 네트워크보안

3) 6.21(화) : 광전자정보, 사이버보안, 부티아트과

4) 6.22(수) : 사회복지과, 특수전과, 포렌치아이즈서비스업과

나. 접수방법 : 방송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처 : 학사관2층 교무팀(대학본부 1층)

6.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복수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출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체육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암시 및 교육공제 등록증 첨부

다. 제출된 서류가 하위 또는 변종에 의한 것이나 판면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음

라. 제출된 서류가 하위 또는 변종에 의한 것이나 판면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음

마. 제출된 서류가 하위 또는 변종에 의한 것이나 판면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음

바. 제출된 서류가 하위 또는 변종에 의한 것이나 판면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음

라. 제출된 서류가 하위 또는 변종에 의한 것이나 판면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음

마. 제출된 서류가 하위 또는 변종에 의한 것이나 판면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음

사. 교수초빙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제 규정에 의함

7. 문의처

가. 담당부서 : 조선이공대학 학사관리처 교무팀

나. 전화번호 : (062) 230-8040 ~ 8043

다. 팩스번호 : (062) 234-8304

라. 홈페이지 : http://www.cst.ac.kr

마.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성동 290번지

2011. 6. 2.